

중국의 식량물류 현대화 계획

■ 중국 국가발전·개혁위원회, 식량물류체계 발전전략 수립

- 식량은 석유, 물과 함께 중국 국민경제안정의 3대 과제로 부각되었음. 이 중 식량은 국민생활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. 강우량부족과 지하수고갈로 식량증산전략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물류관리체제마저 허술하여 정부의 식량문제 대응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음
- 이에 중국의 국가발전·개혁위원회는 국가식량국과 공동으로 “현대 식량물류 발전 계획”을 수립하여 지난 8월 공표하였음
 - 국가발전·개혁위원회는 식량물류의 비효율성이 중국의 식량안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무원과 유관기관, 지방의 발전개혁위원회 및 식량국, 대형식량기업, 연구기관,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 장기 식량물류 개선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
 - 이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, 2006~2010을 제1단계 추진기간, 2011~2015를 제2단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였음
 - 한편, 이 계획의 근거문서는 “식량유통체계 개혁정책 조치 완성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”과 “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강요”임

■ 비효율적인 중국 식량물류체계

-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식량유통량이 많고 이동범위도 광역임
 - 동북지방의 옥수수, 벼, 대두는 화동, 화남,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고, 황하평원, 회하평원, 해하평원의 소맥은 화동, 화남, 서남지방으로 이동하며, 장강 중.하류의 벼는 화동과 화남지방으로 이동함
- 중국 주요 식량이동구간의 연간 수송량은 9,000만 톤을 초과하고 있음
 - 동북지방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옥수수, 벼, 대두의 연간 수송량은 5,700만 톤이고, 황화.회하.해하 3대 평원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소맥과 장강 중.하류지역이 타 지역에 공급하는 벼도 각각 1,700만 톤에 달함

- 식량운송은 대부분을 철도운송과 수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음
 - 식량의 철도운송은 총 운송량의 48%를 차지하고 있으며(철도/해운 복합운송량 제외), 수로운송의 점유비는 42%임. 식량의 도로운송은 총 운송량의 10%에 지나지 않음
- 식량의 운송시스템이 전 근대적이고, 저장창고시설도 낙후한 실정임
 - 식량운송은 마대나 비닐주머니를 이용하는 포장운송이 대부분임. 이 포장운송은 “포장 → 수송 → 포장풀기 → 환적창고 저장 → 포장 → 수송 → 포장풀기 → 소매”의 전통적 운송과정을 거치고 있음. 이러한 운송시스템은 포장재료의 과다 소모, 환적 및 배송시간 과다, 포장과 재포장 과정의 이물질 삽입에 따른 품질 저하 또는 식량 누수에 따른 수량감소가 불가피함
 - 뿐만 아니라 식량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창고의 11%만 식량수송에 적합하고, 나머지 89%는 수송에 부적합한 시설임. 나아가 식량 하역을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식량물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
 - 식량의 산지에서 판매지에 이르는 물류비가 판매가격의 20~30%에 달하는 등 물류비가 과다하고, 동북지방의 산지에서 남방지방의 소비지까지 수송하는데 통상 20~30일이나 소요되며, 운송과정의 손실량도 연간 800만 톤에 달함

【 중국의 식량 유동량 예측】

시기	200-2005 평균	2010 예상량	2015 예상량
연간 식량 유동량	15,051	17,000	18,500

자료 : 국가발전.개혁위원회, “현대식량물류발전계획”, 2007, 8.

■ 식량물류의 “4산화”체제 구축 추진

- 국가발전·개혁위원회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포장물류체제를 지양하고, “산화물 상태의 저장 → 적재 → 운송 → 하역”체계인 “4산화 식량물류체제”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
 - 전문가들은 물류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가 안정적인 식량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산화물형태의 식량물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

- 더구나 식량 유동량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식량물류체계를 방지할 경우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

■ 2015년까지 전국적인 식량물류네트워크 구축

- 중국은 전국적인 “4산화 식량물류체제”를 구축하고, 전략적인 요지에 식량물류연계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국가의 식량시장 조절능력을 확보할 계획
 - 2010년까지 추진되는 제1단계 식량물류 현대화기간에는 “4산화 식량물류체제”를 중점적으로 구축할 예정임. 중국의 장거리 식량운송에서 산화물형태의 수송비율을 현재의 15%에서 35%로 제고시킬 계획임
 -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단계 현대화기간에는 4산화체제를 보편화시키고, 정부의 긴급 시장조절체계를 구축할 예정임. 장거리 식량운송에서 산화물형태의 수송비율을 35%에서 55%로 더욱 제고시킬 계획임
- 전국에 6대 식량유통통로를 구축하고, 식량 환적기지를 건설하며, 수송망을 개선함으로써 도어-투-도어 식량물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 - 동북지방의 식량유출통로, 황하.회하.해하평원의 식량유출통로, 장강 중.하류의 식량유출통로 등 3대 식량유출통로를 구축하고, 화동연해지역의 식량유입통로, 화남연해지역의 식량유입통로, 베이징.천진지역의 식량유입통로 등 3대 식량유입통로를 건설할 예정임. 그리고 식량유출지역의 발송능력과 식량유입지역의 접수능력을 강화시킬 예정임
 - 이와 같은 광역식량유통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은 45개 내륙도시와 17개 항구도시에 식량 환적기지를 건설할 예정임. 이러한 식량물류기지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을 환적할 수 있는 창고 및 관련시설을 구비하게 될 것임
 - 산화물형태의 식량운송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북쪽의 식량을 남쪽으로 이송시키는 ‘북양남운’ 철도운송체제와 철도/해운 연계운송체계를 구축하고, 열차와 선박을 정시에 출발시키는 정기운송노선을 정착시킬 계획임. 그리고 이러한 간선수송체계를 근간으로 식량의 문전-문전 배송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침임
 - 아울러 식량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화물형태 식량수송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.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적식량열차, 산적식량컨테이너, 산적식량트럭, 창고, 하역시설 등 식량관련 물류표준을 제정할 예정임
 - 나아가 식량유통관련 기업과 식량물류관련 기업의 인수.합병을 통한 대형화를

유도하면서 시장의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식량물류주체부문의 혁신을 추구할 계획임. 동시에 식량물류 현대화를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, 전문대학, 연구기관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임

<상해물류연구센터 임종관, jkrim@kmi.re.kr>